

목양 칼럼

자살

한 번은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한 학생이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자살을하면 자기 의사라기 보다 병의 영향이니 그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내가 설교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이 다 자살하겠네요.”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 1)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 2) 내가 자살을 하면 남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3)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자살하고 싶은 영향을 준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그날부터 약 2개월 동안은 자살율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4) 자살에 대해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념대로 자살의 옹호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살의 재판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옹호자가 되면 자살 방조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면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 대한 애정어린 돌봄 사역은 사라지게 된다. 장례 집례자라면 이런 면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기 보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다. 다만 자살한 사람이라도 평소에 그가 한 본받을 만한 일들은 기억하며 그가 힘들어 할 때 더 잘 해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상담자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족들이 그들의 겪는 아픔과 죄책감에 대한 책임을 상담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 6)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마음을 거꾸로 먹으면 좋겠다.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라. ‘살자’가 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CCM)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CCM 청년부 모임	오후 7:30 (금요일)	예일 카페	
영어 아침 기도회	오전 7:30 (매월 첫째 토요일)	CCM 예배실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45호 주후 2024년 11월 10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오세준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94장		
기도	홍찬희집사	김두성장로	김용호장로
성경봉독	눅(Lk.) 9:28-36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오직 그리스도 김중훈목사		
찬송	325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11월 13일 오후 8:30

- 기도: 장혜원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나현아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라용재집사
- 2부: 김동환장로
- 3부: 김근태장로

11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백진아집사
- 3부:곽정희권사, 오지아집사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디모데전서'
- **뉴욕노회 여성교회 연합찬양제:** 오늘 오후 5시 30분, 넘치는 교회
- **제 55기 새가족만남:** 11/10(주일) - 12/8(주일)
 - * 1, 2번째 만남: 주일 오후 1시 15분, 교회 3, 4번째만남: 목요일 오후 8시 30분, Zoom
 - * 수료식: 12월 8일(주일), 3부예배 * 종강식 및 종강파티: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30분, 친교실
- **중고등부 교사모집:** 2025년 1월부터 섬기실 분들 (문의: 유명근 목사, 김근태 장로)
- **성찬식:** 11/17(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예식에 참여합니다.
- **추수감사절 안내**
 - * 추수감사절 세이레 금식기도회 : 10월 31일(목)-11월 23일(토)
 - *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 * 추수감사주일 : 11월 24일(주일), 1-3부예배
 - 세례 및 입교예식 - 3부예배 - 신청: 부목사실
 - 추수감사주일 장식바구니 - 각 선교회 및 교육부서별로
 - 추수감사 만찬 - 6선교회 주관
 - 추수감사 마을 찬양제 및 오행시 : "아바 아버지" - 제출: 부목사실
 - * 추수감사절 절기헌금 금년예산 : \$ 100,000
- **예일찬양단 The Bridge 단원모집:** 보컬 및 악기로 섬기실 분들 (문의: 백에스라목사, 한규만집사)
- **2025 니카라과 단기선교:** 2/20(목)-24(월) (문의 및 신청: 윤희주장로, 이태호집사)
- **강단꽃 장식:** 백에스라목사&백승은사모 (소울 생일) 지은혜집사 (남편 생일)
사랑의 식탁: 박은덕집사 (딸 우경민 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김광균장로 다음주: 이찬용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7마을 다음주: 1/8마을
- **11월 헌금위원**
 - 1부예배: 강성식집사 한문차집사 2부예배: 김선태집사 정수미란권사 김오신권사 박민애권사
 - 3부예배: 김영애권사 김광수집사 김동욱집사 박보라집사 전복희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09:30 am Services. Zoom QR Code:



새가족

- **최은주집사** (물덴동산 목장, 1선교회, Hauppauge, NY 11788)

교우동정

- **한국방문** 박지혜권사 김봉환집사

행사예고

- 11/30(토) 교역자 Retreat
- 12/01(주일) 선교회 총회
- 12/08(주일) 안수집사/권사회 총회

오직 성경(딤후 3:13-17)

1.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13)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먼저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이다 (딤후 3:1-5).
2.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 딤후 3:5)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3. 무엇을 배워야 하며, 왜 배워야 하는가? (15-17)
 - 1)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창 22장 모리아 산 - 대상 21장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 대하 3:1의 솔로몬의 성전터 -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가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 죄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기 때문이다.)
 - 2)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즉,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책이다(GOD-BREATHED). 이것이 일반 책과 다른 점이다. 성경은 40명의 다양한 저자가 1600년동안 쓴 책이다. 그러나 그 주제는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제이다. 즉, 창조 - 타락 - 구원 - 재림(완성)의 주제가 변함없이 성경에는 흐르고 있다.
 - 3)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다. (교훈 - 책망 - 바르게 함 -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 <예-1> 어거스틴(4세기 교부)이 젊은 시절 이단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다(롬 13:11-14).
 - <예-2> 행 6장에서 구제로 인한 초대교회의 갈등이 말씀과 기도로 해결되었다.
 - <예-3> 행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셨다. 이를 계기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
 - <예-4> 한국교회는 1885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있었다. 중국에 장사하려 간 장년들이 영국 선교사들을 만나 번역 작업을 하고 1882년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 온 것이다.

[결론]

장로교 신조 1조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목사, 향촌직 임직시 반드시 이 믿음을 고백해야 안수할 수 있다.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흔들린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결국 망한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서구는 이성과 성경 사이의 갈등을 겪어 왔다. 결국 지금은 성경대로 살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세상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8). 소수지만 남은 자가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 아브라함,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칠천 명과 같은 사람을 남기신다. 누구인가? 누구이면 좋겠는가?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